

유튜브 [임마누엘교회화운현동] 설교
카카오채널 [임마누엘교회] 정보 기도문

심방 및 면담 신청



새가족 환영

God bless you

지난주 신청새가족[2025-33]



신은경 성도

새가족 등록 절차

- 1 새가족실(B1)에서 신청서 작성
- 2 일대일 양육
- 3 속회(소그룹) 배정
- 4 양육수료후 등록교인이 됩니다

임마누엘교회 새가족국

02.3411.1918

예 배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9시 11시	본당
유아유치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청소년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본당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시30분	본당
수요예배		오전 10시30분	본당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시	본당
속회예배	목-토		

오 시 는 길



[외부 주차장 이용]

모빌리티 주차장
강남구 방고개로24길 61

섬기는 교회 | 선교사

해외 강남진 임명호선교사 잠비아
이준 위문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신종현 양승경 선교사 T국

국내 영파교회 교병선목사
익산벤엘교회 마준철목사
예교회 박정현목사
엘리사교회(군선교) 최이용목사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극동방송
행복한선교회
성남의료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시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06378 서울시 강남구 방고개로 23길 7
T 02.3411.1918

www.immch.or.kr

SINCE1982.4.11

제25-33
2025.8.17

임마누엘교회
성도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습니다.

가독교대한감리회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 김 영 광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경배와찬양	다함께	
*찬양	내가 만민중에	다함께
*예배로의부름	김영광 목사	
*신앙고백	다함께	
대표기도	창세기 24:28-53(42-53) [새번역]	1부 박형근 권사 2부 마승초 장로
성경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설교	김영광 목사	
*봉헌과결단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다함께
*축도	김영광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표 기도

8/24 1부 변희주 권사
2부 주진범 장로

8/31 1부 손문방 권사
2부 주창호 장로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에스겔

김영광 목사
김경현 목사
유한나 목사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예배] 오전 10:30

[수요전도] 오후 1:00

[목요전도] 오후 6:00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00

[속회예배] 목-토

교회, 나의 기도원

화 ~ 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정 예 배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5)마침기도

찬양_하나님의 부르심

말씀_창세기 24장 28-53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자기 고집과 계획이 꺾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좋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밝히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참 듣고 있던 가족들은 종에게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51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50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렇게 해야지..."이것이 바로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자신들의 생각, 판단, 고집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리브가 역시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리브가를 불러 이 사람들을 따라가겠는지 묻습니다. 리브가가 말합니다.

가정예배

:58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는 지금까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여겨지면 내 생각과 계획과 두려움을 꺾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지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여겨지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고집, 판단, 내 편안함, 내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리브가의 가족들이 고백한 대로,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이것하나 분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 2)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여겨져 순종해본 경험은 언제입니까?

온라인 헌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헌금종류' 기재

예시) 십 일 조-김바울십 / 감사헌금-김바울감

주일헌금-김바울주 / 선교헌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울일 / 건축헌금-김바울건